

전남 아쉬운 패배 후폭풍... '무패 광주 FC' 2위로

'K리그2' 부산전 11개 슈팅 무산
심판 판정 아쉬움... 리그 8위 추락
승리한 부산, 광주와 승점 동률
다득점에서 앞서 1위 등극

전남드래곤즈가 부산아이파크에 0-1로 덜미를 잡혔다. 석연치 않은 심판판정이 두고 두고 아쉬운 승부였다.

전남이 지난 27일 부산전에 패함에 따라 리그 순위가 바뀌었다. 부산은 전남전 승리로 승점 3점을 챙기며 줄곧 1위를 달리던 광주FC와 승점 27점으로 동률이 됐다.

승점-다득점-득실차-다승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K리그2 규정에 따라 이날 부산(31)은 광주(20)에 다득점에서 앞서 1위에 올랐다.

전남은 이날 부산구덕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19 13라운드 원정에서 김진규에게 결승골을 헌납, 1-0으로 패했다.

전남은 이로써 리그 8위(승점 12)에 머물렀다. 전남의 바램과 달리 경기 시작 8분만에 부산에 이른 실점을 허용했다.

전반 8분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부산의 이동준은 두 명의 수비 사이로 땅볼 크로스를 올렸다.

최근 벤투호에 선발된 이정협은 슛 속임 동작 후 공을 건드리지 않고 동료에게 흘려줬고, 이를 김진규가 슈팅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뽑아냈다.

전남은 이후 공세를 강화했지만, 아쉬운 심판 판정과 잇따른 불운에 동점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전반 28분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던 정재희가 왼발 터닝 슛으로 부산의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비디오판독(VAR) 결과, 전남 김경민이 골키퍼의 시야를 가린 것으로 판정돼 골은 무효처리됐다.

전반 35분 김영욱의 페널티킥마저 골대에 맞아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전남은 11개의 슈팅을 퍼붓고도 무위에 그쳐 승점 획득에 실패했다.

경기가 끝난후 전남 선수들과 축구팬들은 심판 판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노골? 말도 안돼” 정재희(전남 드래곤즈)가 지난 27일 부산구덕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19 13라운드 원정에서 동점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정재희의 골은 비디오판독(VAR) 결과, 같은 팀 김경민이 부산 골키퍼의 시야를 가린 것으로 판정돼 무효처리됐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전남 골키퍼 박준혁은 SNS를 통해 “눈뜬 장님들 인기”라는 글을 올렸고 중앙수비수인 박광선도 자신의 SNS에 “분명 골은 우리가 2골 넣었는데 결과는 1대0으로 진건 실화? 눈뜬 장님들 덕분인가?”라는 글을 게재했다.

비디오 판독 판정으로 취소된 정재희의 골을 두고 축구팬들도 “말이 안되는 판정”이라며 주심과 비디오판독 심판의 판정을 비난했다. 전남의 파비아노 감독은 말을 아꼈다. 전남의 파비아노 감독은 지난 1일 열린 9라운드 안산그 파비아노 감독은

리너스와의 경기 종료 후 열린 공식인터뷰에서 심판의 판정을 비난해 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울산은 전남을 승격을 위해 2017시즌 브라질 1부 리그 아틀레치쿠 파라나엔시를 맡았던 파비아노 감독을 선임하는 등 체제를 정비했으나 경기당 0.7골이라는 결정력 부재를 드러내며 현재 3승 3무 7패로 K리그2(10개팀) 8위에 머물러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끝내준 다음날 선수생활 끝

박한이, 음주사고 적발 후 은퇴선언



2019 KBO리그 최고령 선수 박한이(40·삼성 라이온즈)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은퇴를 결심했다.

삼성은 27일 “박한이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자 은퇴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박한이는 이날 오전 자녀 등교를 위해 운전했다. 자녀를 등교시킨 뒤 귀가하던 길, 오전 9시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근에서 접촉사고가 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했고, 박한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박한이는 구단을 통해 “26일 대구 키움 히어로즈전이 끝난 뒤, 자녀의 아이스하키 운동을 잠깐한 후 지인들과 늦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삼성 구단은 음주 사고가 일어난 뒤 곧바로 KBO에 보고했다.

박한이는 “음주운전 적발은 어떠한 이유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은퇴하기로 했다”며 “징계, 봉사활동 등 어떠한 조치가 있더라도 성실히 이행하겠다. 무엇보다도 저를 아껴주시던 팬분들과 구단에 죄송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상현 “자신감은 구속 160km”



하준영·고영창·문경찬 이어 KIA 불펜 셋별
지난해 퓨처스리그 상무서 에이스 활약
올 16.1이닝 탈삼진 21개·평균자책점 2.76
제구력·스피드 장점...“마무리 되는게 꿈”

“짧은 마운드”의 경쟁에 전상현이 불을 붙인다. KIA 타이거즈 불펜은 올 시즌 새 얼굴들로 새 판을 짜며 변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좌완 하준영이 가장 먼저 불펜의 ‘셋별’이 됐고, 투심을 앞세운 고영창은 가장 부지런히 마운드를 오르내리고 있다. 문경찬은 마무리로 팀의 마지막 순간을 책임지고 있다.

전상현도 주목받는 KIA의 씩씩한 젊은 불펜진이다.

‘안방마님’ 한승택이 최근 가장 구위가 좋은 선수로 꼽히는 이가 바로 전상현이다.

전상현은 지난 시즌 상무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퓨처스리그 2관왕에 올랐다. 하지만 팀에 복귀한 뒤 기대했던 역할은 맡지 못했다.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전상현은 지난 달 24일 마침내 1군에 포함됐다.

28일 경기 전까지 13경기에 나온 그는 16.1이닝을 던지며 2.7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전상현은 21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동안 불빛은 3개만 허용하면서 좋은 제구력도 보여줬다.

전상현은 “삼진을 잡을 때 개인적으로는 헛스윙 삼진보다 루킹 삼진이 좋다. 내가 원하는 곳에 공을 던져서 상대를 돌려세울 때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자신의 장점인 제구에 스피드가 더해지면서 전상현은 놀라운 성장세로 팀 불펜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며 웃은 전상현은 “준비한 게 여기에서 나온 것 같다. 2군에서 하체 쓰는 연습에 가장 신경 썼다”고 구속 상승의 비결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스피드가 나오면서 전상현의 자신감에도 속도가 붙었다.

전상현은 “상무에서 좋았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 제대로 하고 뭔가 던질 때 힘 쓰는 게 밸런스 이런 게 안 맞았다”며 “지금도 완전한 내 것은 아니어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스피드가 올라오고 구위가 좋아져서 자신감이 더 붙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상무의 에이스로 뛰었던 지난해와 달리 전상현은 올 시즌 KIA의 필승조로 활약하고 있다. 초반에는 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

전상현은 “선발은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관리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있었다. 중간 같은 경우는 매 경기 일을 해야 하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다르다”며 “처음에는 연투를 하고 준비하는 게 힘들기는 했다. 지금은 괜찮다”고 언급했다.

또 “어릴 때부터 마무리가 꿈이었다. 오승환 선배님이 롤 모델이었다. 마운드에서 흔들리지 않고 덩달하게 배정 있는 모습이 좋았다”며 “시합 때 긴장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자신감이 가장 큰 무기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마무리를 하고 싶다”며 마무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마무리”라는 꿈을 꾸고 있지만 전상현의 우선 목표는 풀타임이다.

전상현은 “지금 내가 어떤 목표를 잡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많다. 그래서 올해는 풀타임을 하면서 1군에 있는 것을 목표로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